

## 과천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비교

한지형<sup>1</sup> · 황지민<sup>†</sup>

<sup>1</sup>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 Comparison of the Oral Health Awareness of Students in Schools with and without Dental Clinic in the City of Gwacheon

Ji-Hyoung Han<sup>1</sup> and Ji-Min Hwang<sup>†</sup>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Eulji University, Soojung-Gu, Seongnam City, Kyungki-Do 461-713, Korea.

Dep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Jangan-Gu, Suwon City, Kyungki-Do 133-79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awareness of students in schools equipped with and without a dental clinic in the city of Gwache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82 students in that area. Out of them, 398 students attended a school furnished with a dental clinic, and 384 attended another school that wasn't equipped with a dental clinic. It's ultimately meant in this study to contribute to boosting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a school dental clinic and stepping up the development of quality oral health program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en the students from the two schools were compared in terms of oral health knowledge, there wasn't an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wo groups in general. One difference was that the students from the school furnished with a dental clinic were more aware of presentive treatment provided by a dental clinic than the others from the other school. 2. As for attitude to oral heal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every regard except daily mean frequency of having a snack. 3. Regarding oral health belief, the students from the school equipped with a dental clinic had a better oral health belief in every aspect including health status, importance of oral health and interest than the other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significant. 4. Concerning perception of school dental clinic, the students from the school furnished with a dental clinic were better cognizant of it. As to the necessity of it, both groups viewed it a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ental caries. In terms of preference for school dental clinic, the students from the school furnished with a dental clinic had a greater preference for that.

**Key words** School dental clinic,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attitude

##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 사회 경제적 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더 이상 평균수명의 연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래살기보다 건강하게 살기를 갈망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건강관련 정보와 행위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학교환경의 변화로 이어져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중앙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sup>1)</sup>. 이는 학교보건교육의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보건태도와 행동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sup>2)</sup>. 또한 학생건강과 학업 성취도와의 높은 관련성<sup>3)</sup>과 학생 건강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는 점점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전신건강의 수준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구강건강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이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구강건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1985년 처음으로 보건사회부가 학교구강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지침<sup>5)</sup>을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가 구강정책 목표로 2010년까지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3.0개 이하로 낮추고, 12세 아동의 우식영구치율을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up>6)</sup>.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구강보건교육을 들 수 있다. Redmond<sup>7)</sup> 등은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병에 대한

<sup>†</sup>Corresponding author

Tel: 017-232-6621

E-mail: 621zimina@hanmail.net

지식의 향상과 잇솔질 기간의 개선을 가져왔고, 이것은 구강위생의 개선과 잇몸출혈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구강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 정부의 체계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학생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인식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학교구강보건의 목적은 학생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켜 건전한 심신을 양성하여 교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정기구강검진, 집단 잇솔질,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실시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학생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8-10)</sup>.

이에 본 연구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의 지식 및 태도, 인식 등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향후 계속되는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설

정 및 구강건강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과천시 관할 초등학교 중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1개교-청계 초등학교)와 비운영학교(3개교-과천, 관문, 문원 초등학교) 총 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2학년씩 Random sampling으로 추출하여 운영학교 학생 398명과 비운영학교 학생 384명, 총 782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자가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Ver 11.5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건강 지식과 태도,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chi-square 검정을,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과 필요성 및 선호도에 대한 비교는 T-test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students in schools with and without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With dental clinic N(%)	Withoutdental clinic N(%)	$\chi^2$	p -value	
Caries food	Chocolate or milk	7(1.8)	5(1.3)	0.818	.845	
	Candy or cheese	10(2.5)	13(3.4)			
	Chocolate or biscuit	374(94.0)	360(93.8)			
	Apple or fish	7(1.8)	6(1.6)			
Tooth clean food	Cheese or ege	84(21.1)	71(18.5)	6.184	.103	
	Pear or apple	277(69.6)	292(76.0)			
	Bread or coke	1(0.3)	0			
	Dried persimmons or fish	36(9.0)	21(5.5)			
A number of times per day	1 time	3(0.8)	4(1.0)	1.389	.846	
	2 times	31(7.8)	27(7.0)			
	3 times	326(81.9)	318(82.8)			
	4 times	29(7.3)	23(6.0)			
	More than 5 times	9(2.3)	12(3.1)			
Have you ever heard of prevtive treatment	Oral exam.	Yes	370(93.0)	324(84.4)	14.439	.000***
		No	28(7.0)			
	Sealant	Yes	332(83.4)	210(54.7)	75.835	.000***
		No	66(16.6)			
	Fluoride application	Yes	323(81.2)	89(23.2)	263.548	.000***
		No	75(18.8)			
	Oral health education	Yes	339(85.2)	227(59.1)	66.396	.000***
		No	59(14.8)			
	Scaling	Yes	204(51.3)	125(32.6)	28.055	.000***
		No	194(48.7)			
	Gargle of fluoride solution	Yes	347(87.2)	179(46.6)	146.095	.000***
		No	51(12.8)			
Total		398(100.0)	384(100.0)			

\*\*\*P < 0.001

**결 과**

**1.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 건강지식 비교**

구강건강지식은 학생들이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을 조사하여 Table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충치유발 음식과 치아청결 음식에 있어 운영학교와 비운영 학교 학생 모두 ‘초코렛, 비스킷’, ‘배, 사과’를 선택하여 각각 약 94%, 70%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일 잇솔질은 몇 번 해야 하는지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운영학교(81.9%)와 비운영학교(82.8%) 모두 ‘3번’ 이라고 다수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진료인 ‘구강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스케일링)’, ‘불소용액양치’에 대해서는 운영학교의 학생이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비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0).

특히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 처치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치면세마(스케일링)의 경우는 운영학교 학생에 있어서도 51.3% 만이 들어보았다고 답해 치면세마(스케일링)에 대한 홍보와 처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 건강태도 비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건강태도에 대한 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일 평균 간식 섭취 횟수에 있어서 운영학교(48.7%)와 비운영학교(51.6%) 학생 모두 평균 ‘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회’, ‘먹지 않는다.’ 순의 결과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운영학교의 학생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보다 간식 섭취의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3).

간식섭취에 있어서 운영학교 학생과 비운영학교 학생 모두 ‘야채, 과일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빈도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과자, 케익, 사탕류’, ‘흰 우유’, ‘피자, 햄버거, 닭튀김 등의 패스트푸드’,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 순의 결과를 나타냈다.

일일 잇솔질 횟수에 대해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 모두 50% 이상 2회를 닦고 있었으며, 혀와 잇몸의 세척 여부에서도 대부분의 응답학생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방문 시기는 운영 및 비운영 학생 모두 ‘치아가 아플 때만 방문’ 이라고 50% 이상이 답하였으며, 6개월이나 1년 사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학생은 약 40% 정도를 보이고 있어 과거보다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일 평균 간식 섭취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운영

**Table 2. Comparison of the oral health attitude of students in schools with and without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With dental clinic N(%)	Without dental clinic N(%)	x <sup>2</sup>	p-value
A number of times take a snack per day	1 time	194(48.7)	198(51.6)	13.758	.003**
	2-3 times	162(40.7)	166(43.2)		
	More than 4times	9(2.3)	11(2.9)		
	Never eat	33(8.3)	9(2.3)		
A kind of snack	Cookies, cake, candy	92(23.1)	95(24.7)	6.410	.171
	Vegetables, fruit	230(57.8)	192(50.0)		
	Carbonated drink	3(0.8)	5(1.3)		
	Milk	67(16.8)	87(22.7)		
	Fast food	6(1.5)	5(1.3)		
A number of times tooth brushing per day	1 time	30(7.5)	19(4.9)	2.444	.655
	2 times	211(53.0)	212(55.2)		
	3 times	132(33.2)	129(33.6)		
	4 times	19(4.8)	17(4.4)		
	More than 5 times	6(1.5)	7(1.8)		
Tongue and gingiva cleansing or not	Yes	321(80.7)	288(75.0)	3.625	.057
	No	77(19.3)	96(25.0)		
Visit period of dental clinic	When you are sick	238(59.8)	223(58.1)	2.234	.525
	Every 6months	104(26.1)	97(25.3)		
	Every 1 year	47(11.8)	58(15.1)		
	Never go	9(2.3)	6(1.6)		
Total		398(100.0)	384(100.0)		

\*\*P < 0.01

및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대한 비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소 잇솔질 닦는 시기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아침식사 후’,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나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 모두 식사 후에는 이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3.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비교**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의 항목으로 구강의 건강상태, 중요도, 관심도를 조사하였으며,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형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치아와 잇몸의 건강상태’에서는 운영학교 3.64, 비운영학교 3.37로 운영학교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치아와 잇몸의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 ‘치아와 잇몸건강의 중요도’에서는 운영학교 학생이 4.66, 비운영학교 학생이 4.56을 보였으며, 치아와 잇몸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에 있어 각각 3.85, 3.66으로 운영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의 항목 모두 p=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운영학교의 학생이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운영 및 비운영학교의 학교구강보건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학교구강보건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구강보건실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에 있어서 운영학교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가 72.9%를, 비운영학교에서는 29.4%만이 들어보았다고 답하였다(p = .000). 운영학교에 있어서 학교구강보건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약 27%가 모른다고 답한 것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구강보건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충치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각각 81.7%, 81.3%로 답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두 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179).

**5. 운영 및 비운영학교의 학교구강보건실에 대한 필요성과 선호도**

학교구강보건실에 대한 필요성과 선호도를 5점을 만점으로 알아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운영학교 학생들은 4.35, 비운영학교 학생들은 3.91로 운영학교에 있어서 학교구강보건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p = .000) 학교구강보건실의 선호도 역시 운영학교가 3.75, 비운영학교 3.57로 운영학교 학생이 더

**Table 3. Comparison of the oral health belief of students in schools with and without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With dental clinic M ± SD	Without dental clinic M ± SD	t	p-value
Health status of oral health	3.64 ± .800	3.37 ± .823	4.578	.000***
Importance of oral health	4.66 ± .543	4.56 ± .627	2.407	.016*
Concerned of oral health	3.85 ± .812	3.66 ± .842	3.216	.001**

\*P < 0.05, \*\*P < 0.01, \*\*\*P < 0.001

**Table 4. Comparison of the oral health awareness of school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With dental clinic N(%)	Without dental clinic N(%)	χ <sup>2</sup>	p-value
Have you ever heard of school dental clinic	Yes	290(72.9)	113(29.4)	147.639	.000***
	No	108(27.1)	271(70.6)		
Reason of needs	Prevent and treatment of dental caries	325(81.7)	312(81.3)	4.908	.179
	Treatment is free	32(8.0)	20(5.2)		
	Because you have not to going dental clinic	18(4.5)	18(4.7)		
	Isn't afraid of treatment because with friends together	23(5.8)	34(8.9)		
Total		398(100.0)	384(100.0)		

\*\*\*P < 0.001

**Table 5. Comparison of the needs and preference of school dental clinic**

Characteristics	With dental clinic M ± SD	Without dental clinic M ± SD	t	p-value
Needs of school dental clinic	4.35 ± .707	3.91 ± .808	8.102	.000***
Preference of school dental clinic	3.75 ± .927	3.57 ± .962	2.679	.008**

\*\*P < 0.01, \*\*\*P < 0.001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p=.008$ ).

## 고 찰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영역은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판단하며, 학습 후에 문제해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sup>4)</sup>.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경우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은 부모나 치과의원을 통해 전달 받는다. 그러나 학교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강태도를 변화시키고, 구강건강 관리행동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숙진<sup>4)</sup>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과천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을 비교한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에 있어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 학생과 비운영학교 학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비운영학교 학생이 현저히 부족하게 나타났다. 구강건강태도의 경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아 추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운영학교의 학생이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은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sup>11)</sup>긍정적인 태도의 변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혜경<sup>12)</sup>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구강보건실의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에서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구강보건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운영학교의 학생과 비운영학교 학생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령기에는 자가 구강관리 능력에 있어 학생들 스스로에게만 의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구강건강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정미<sup>13)</sup>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구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부모와 관련된 요인이 전적으로 아동의 구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아동의 구강건강 책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이다. 향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부모와 아동을 함께 고려한다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지속적인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와 학교구강보건실 사업 확대로 이어진다. 초등학교 구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해 교육내용의 전문성 강화와 우식증 예방행위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up>14)</sup>. 또한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가 아동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관찰과 감독을 함과 동시에 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교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동에게만 사업대상을 국한시키지 말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계속되는 문제점은 사업의 기획과 평가가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업수행이 계속 되고 있으며, 우식 예방정도, 구강건강증진도와 같은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sup>15)</sup>.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구강보건사업은 합리적인 평가가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천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연계되는 후속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고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포괄적 구강보건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요 약

본 연구는 과천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인식도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과천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 학생 398명, 비운영학교 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향후 계속되는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설정 및 구강건강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이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비교 결과 다른 질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진료

에 대해서는 운영학교의 학생이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비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2. 구강건강태도에 관한 결과 일일 평균 간식 섭취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큰 운영 및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구강건강신념에 있어서는 건강상태, 중요도, 관심도 모두 운영학교의 학생이 비운영학교의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학교구강보건실 인식도에 대한 결과 운영학교에서 인식도가 높았으며, 필요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충치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실의 선호도에 있어서도 운영학교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 참고문헌

1. Kim SW: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by Means of Historical Review of School Health Program.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12-13, 2003.
2. Chang CG: Model Building Strategy for Healthy Schools.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3(1): 39-46, 2001.
3. Levinger B: Nutrition, health and education for all. M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
4. Kim SJ: Relationships between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the Dental Health and the Denatla Health Conditions in Elementary Stud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1-3, 2003.
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guide of school oral health management work, 1985.
6. Lim SH, Kim EK, Gwon M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chool oral health clinics to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of children. JDHS 5(4): 233-238, 2005.
7. Redmond CA, Blinkhorn FA, Kay EJ, Davies RM, Worthinton HV, Blinkhorn AS: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based D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 Public Health Dentistry 59(1): 12-17, 1999.
8. Lim KA: Dental caries status of children and youth in Singapore. Ann Acad Med Singapore 15: 275-286, 1986.
9. Sterritt GR, Frew RA: Evaluation of a school-based fluoride mouthrinsing and clinic-based sealan program a non-fluoride Island.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8: 288-294, 1990.
10. Robert A, Bagramian A: 5-year school based comprehensive preventive program in Michigan. Community Dent Oral Dpodemiol 10: 234-238, 1982.
11. Han JH, Shin MS, Hwang JM : Knowledge, attitude and beliefs about oral cancer of Dept. of Dental hygiene students. JDHS 5(4): 179-184, 2005.
12. Lee HK: Impact of oral-health knowledge on oral-health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er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9-20, 2007.
13. Jeon JM: A study in conscious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focusing on health educators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Graduate School Dongduck Women University, 41-44, 2004.
14. Kim KD: Dental IQ and oral health care statu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28-33, 2002.
15. Song HJ: A study of caries preventive effect on community dental health programs in Korea.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1-4, 2005.

(Received February 23, 2008; Accepted March 18, 2008)

